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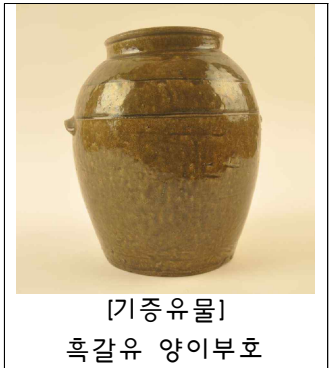
## ★우리 문화속의 도자기

도자기 陶磁器란 가소성이 뛰어난 점토를 이용하여 어떤 형태를 만들고 이것을 불에 구워낸 그릇을 총칭하는 말이다. 선사시대에 제작된 토기土器, 도기陶器, 자기磁器를 모두 일컫는데 굽는 온도와 구워내는 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자기는 중국 한나라때 회도灰陶라고 하는 초기 단계의 자기를 거쳐서 남북조시대에 들어와 월주越州에서 처음 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토기의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10세기경에 고려청자가 만들어졌고 이후 독자적인 도자 세계를 형성해나갔다.



[기증유물] 백자광구병

백자는 중국 명나라 선진기술의 영향을 받아 15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되어 조선시대 도자기의 중심을 이룬다. 고령토를 빚어 그릇을 만들고 장식유를 씌어 1300℃에서 소성한 자기이다. 백자의 기종 중 광구병廣口瓶은 삼국시대 토기에서부터 고려, 조선시대까지 계속 만들어진 기형이다. 입큰병이라고도 불리며, 중국 육조시대의 동기銅器에 그 조형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술병으로 널리 애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부장용으로 제작·출토되는 사례가 많다. 기증유물은 백자 광구병으로 무늬가 없는 소문백자素文白磁이다. 평저굽바닥에 동체는 만곡하며 동체부와 경부, 구연부에는 각角이 관찰된다.



[기증유물]  
흑갈유 양이부호

흑유자黑釉磁는 청자 태토로 그릇을 만든 후 산화철酸化鐵 성분이 많은 흑유를 발라 구운 것이다. 고려시대부터 전통이 있으며 주로 저장·운반용의 기물로 사용되었다. 조선전기에는 항아리, 장군, 편병, 주병, 주자 등 저장과 운반용의 기종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격적으로 제작되는 17~18세기에는 농어업의 발달과 다양한 조리법 등이 저장용기의 수요를 급증하게 했고, 그로 인해 다양한 흑유자가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음식 기명에도 함께 나타난다. 기증유물은 흑갈색을 시유한

호壺이며, 양쪽에 작은 귀耳가 달린 양이부호이다.

※故 석암石巖 송병익宋秉翊선생의 기증유물은 총 6건 7점이다. 이번 특별전시에서는 4건 4점에 대한 유물을 다루었으며, 남은 2건 3점에 대한 유물도 3월 중 전시할 계획에 있다.

총괄·기획 김원규, 강경연, 최해민  
발행 경남대학교박물관

☎ 055-249-2924, 2922  
http://museum.kyungnam.ac.kr

## 박물관 연중기획 - 이달의 문화재 : 특별전시 故석암石巖 송병익宋秉翊선생 기증유물 특별전

### 석암石巖 송병익宋秉翊 선생 약력(1927~2013)

- 1927. 11. 13  
마산시 오동동 108번지 출생
- 1952. 10  
남전(한전)주최 제1회 종합사진전 특선
- 1962. 2. 10  
한국사진작가협회 마산지부 창립
- 1972. 2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수료
- 1975. 2  
한국전력 노동조합 부위원장 역임
- 1983 ~ 1990  
한국예총 마산지부장 역임
- 1984. 3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 역임
- 1984. 6  
한국예총 경남도 지회장 역임
- 1990. 2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이사 역임
- 1994. 12  
마산시 문화상(예술부분) 수상
- 1998. 2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문화상(공로상) 수상
- 1999. 12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예술문화상 수상
- 2001. 12  
경상남도 문화상(조형부분) 수상
- 2002. 1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공로패 수상
- 2004. 9  
마산대우백화점 사진전 개최“송병익 작품집 巖의美” 출판
- 2013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및 마산지부 창립회원·고문



경남대학교박물관 특별전시실(한마미래관 2층)

## 가족과 예술, 책을 사랑한 예술가 - 故 석암石巖 송병익宋秉翊

석암石巖 송병익宋秉翊, 1927~2013 선생은 1927년 11월 13일 지금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 14길(오동동 108번지)에서 출생하였다. 일찍이 남선전기주식회사(한국전력의 전신)에 근무하며 사진에 입문하였고, 1952년 남선전기주식회사가 주최한 제1회 종합사진전에서 특선 입선하면서 사진예술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1962년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마산지부를 창립하였으며, 이후 한국예총 마산지부장1983~1990,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1984, 한국예총경상남도지회장1984, 한국예총 이사1990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와 우리나라의 예술 발전에 헌신하였다.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생은 마산시 문화상1994을 비롯해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문화상1998, 한국예총 예술문화상1999, 경상남도 문화상2001 등을 수상하였으며, 2002년에는 한국사진작가협회로부터 사진공로패를 받기도 하였다. 2004년에는 마산대우백화점에서 선생의 작품을 모은 개인전을 개최하고 작품집으로『송병익 작품집 翊의美』를 출간하였다.

1972년 선생은 우리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그의 유품을 소장하고 있던 차녀 송예희씨가 이들 유물을 선친의 예술혼이 살아 숨 쉬는 고향 경남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하였다.

### ★우리 문화속의 중국도자기

우리문화는 인접국인 중국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해왔다. 우리문화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중국도자기는 이미 한 대부터 대외진출이 이루어졌다. 당대에는 서방과의 교류와 함께 월주요 청자와 형주요·정요의 백자가 대량으로 보급되었다. 송대에는 수운무역이 활기를 띠면서 기존의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원대는 당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도자기 수출이 더욱 번성하게 되는데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해저에서 출토된 각종 도자기가 이를 증명한다. 유물은 중국 경원慶元(현 절강성 Ningbo)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중에 침몰된 것으로 지대통보至大通寶(1308~1311)와 「지치삼년至治三年」명(1323) 하찰목간荷札木簡을 통해 교역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출토된 도자기는 절강성 용천요 청자, 강서성 경덕진요 백청자



[기증유물]  
청자모란문어룡식병

가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화남지역에서 생산된 도자기가 확인되어 당시 유통되던 도자기의 양상과 해상 무역의 상황을 시사해준다. 이 밖에도 도역자기의 성격을 띠는 예로 제주도 한경면 해저 출토 남송대(1127-1279) 청자가 있으며, 기타 서해안 일대 및 내륙지방에서는 신안 해저 자기류가 출토되어 국내에 유입된 중국 무역자기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기증유물은 원대 용천요 출토품과 유사한 청자로 동체부에는 모란문이 확인되고 양쪽에 고리장식이 달려있다.

가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화남지역에서 생산된 도자기가 확인되어 당시 유통되던 도자기의 양상과 해상 무역의 상황을 시사해준다. 이 밖에도 도역자기의 성격을 띠는 예로 제주도 한경면 해저 출토 남송대(1127-1279) 청자가 있으며, 기타 서해안 일대 및 내륙지방에서는 신안 해저 자기류가 출토되어 국내에 유입된 중국 무역자기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기증유물은 원대 용천요 출토품과 유사한 청자로 동체부에는 모란문이 확인되고 양쪽에 고리장식이 달려있다.

### ★옥으로 만든 예기, 옥벽 玉璧

옥벽은 일반적으로 둥글고 납작한 형태에 가운데 구멍이 있는 옥기를 일컫는다. 신석기 말기부터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온 유물이다. 고대 중국에서 귀족들이 종묘와 궁궐 등에서 의식을 거행할 때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사용자의 지위·신분·권력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두고 사용되었다. 선사시대에는 문양이 없는 소벽素璧으로 장신구가 주된 기능이었고, 크기도 작은 편이었다. 이후 생산성 및 기술의 발전으로 예기禮器, 상장용구喪葬用具의 기능을 하게 된다. 위세품의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크기가 커지고 문양이 새겨진 것이 등장하게 된다. 형태는 무늬가 없는 것, 얇은 조각 무늬가 새겨진 것, 입체적인 부조가 달린 것, 꼭지모양 새김 장식 등 다양하게 확인된다.



1968년 허베이성 만청현滿城縣의 중산정왕中山靖王 유승묘劉勝墓에서 출토된 옥벽이다. 출토 당시 관棺과 곽槨 사이에 놓여있었다. 순정한 백옥이며 부분적으로 약간의 침식이 있다. 앞뒷면의 무늬장식이 똑같다. 상부는 투조透彫했는데, 좌우에 용 두 마리를 대칭되게 표현하였다. 한 대의 옥벽 중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꼽힌다.



허베이성 당현定縣의 중산간왕中山簡王 유언묘劉焉墓에서 출토된 옥벽이다. 청옥이며 유언묘 출토 옥기 중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손꼽힌다. 상부는 투조透彫로 용 두 마리를 표현하였으며, 그 사이사이를 구름무늬로 장식하여 매우 신비스러운 느낌이 들게 했다.



기증받은 옥기는 둥글고 납작한 형태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기형이며, 입체적인 부조가 달린 형태이다. 출토위치 등의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장신구의 기능을 하는 것 보다는 크기가 커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특수한 의미를 지닌 기물로서 기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